

01 교회소식

하나님은 앞일을 다 아십니다!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한 치 오차없이 적중해 전을케 했던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예언들을 되짚어 본다.

02 생명의 말씀

영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순종하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선한 생각을 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사랑을 심어야 한다.

03 간증

폭력 남편이 순한 양처럼 변화돼

고열과 장티푸스를 하나님께 치료받고, 폭력적인 남편이 온유하게 변화된 네팔만민선교센터 무나 바다 성도 간증.

04 포커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재록 목사의 저서 「멈추지 않는다」와 「나의 삶 나의 신앙 2」에 실린 북한에 대한 예언을 게재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 만민뉴스

제639호 2014년 6월 2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세계 정세 및 경제 흐름 예언 성취

## 6.29 선언과 역대 대통령 선거, 남북정상회담 결과 적중

하고, 그 마음이 사랑으로 일구어진 반도... 비밀한 것까지라도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종 선지자란, 반드시 하나님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과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결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밀한 일을 미리 알리시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 경작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을

예언은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성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이다. 성경에 노아는 큰 홍수가 있을 것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엘리야는 가뭄 중 큰 비가 내릴 것을 예언했다. 또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등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건을, 다니엘과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을 계시받아 성경에 기록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6월에 대한민국 민주화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앞서 6월 18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이 사건을 알려 주셨고, 우리 교회는 6월 21일 주일 주보에 약자로 표기했다. 당시는 군사정권이었고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머리글자만 쓰되 그 순서를 역으로 해서 주보 광고란에 실었던 것이다.

'민·개·약·세·대·계·총·머·노·후·대'  
 머리글자를 뒤에서부터 풀이하면 '대' 대통령, '후' 후보, '노' 노태우를 의미한다. 전두환 대통령은 후보인 노태우를 지지할 목적으로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지만 '대' 머리에 '총' 총을 맞아 죽는 것처럼, '계' 모든 계획이 무산돼, '대' 대통령, '세' 세력이, '약' 약화 즉 전두환 대통령의 세력이 약화되므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노태우 대표로 하여금 6.29 선언을 발표하게 한다. 따라서 직선제 합의하에 '개' 개헌이 이뤄져, '민' 민주화의 서막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전두환 정권이 지명한 대통령 후보 노태우 씨의 지지기반이 약화돼 대통령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많은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알려 주셨다.

“너희 백성들이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거기에 투쟁한 자, 몸 바친 자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머리

된 자들이 화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그 일이 잘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둘 다 설 수 없는 일이다. 둘 다 설 수 없을 때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당연히 모든 것을 꾸준히 쌓아왔고 많은 것으로서 이루어지고 또한 탄탄대로를 달려왔던 것 속에서 우세할 것이 아니겠느냐.”

국민들은 민주화 운동에 힘썼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둘 다 당선될 수 없다는 것. 군사정권인 집권당의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 주신 것이다. 결국 김영삼, 김대중 후보는 힘을 합치지 않았고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가 차례로 꽃마차를 타고 청와대로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 그 순서대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 김대중 대통령 서거 등에 대해서도 예언케 하셨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교회 개척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개척 후에는 남북교류, 유럽공동체에 관해 또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 인도의 수상 인디라 간디의 운명 시기,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콘

스탄틴 체르넨코의 사망, 영국 마거릿 대처 수상의 3선과 코소보 전쟁 등에 대해서도 예언한 바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앞일과 세계사의 모든 흐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유가 변동과 중동의 흐름, 미국과 EU, 구 공산권(중국과 러시아) 등 세계 주요 세력들의 흐름이 삼파전의 양상으로 균형을 잡는 것 등도 예언케 하셨다. 또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 러시아의 강성, 그리고 대북 햇볕정책 실패와 앞으로 북한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다시 단계 될 것 등도 예언케 하셨다(관련기사 4면).

이처럼 이재록 목사가 끊임없이 예언하는 이유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수많은 성도에게 믿음을 심어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이다.

6.29 예언이 게재된 1987년 6월 21일 만민중앙교회 주보 표지와 속지



당회장 이재록 목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6)

# 영의 사람이 되려면

는 것 같지만 상대의 잘못과 부족함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지역장님이 김 집사님의 생일은 챙기는데 자신의 생일은 지나가 버립니다. 이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사랑을 받으니 함께 행복해할 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반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서운함과 더불어 과거의 일까지 떠오릅니다. ‘예전에도 김 집사님만 칭찬하셨지. 내가 배움이 적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깐 똑같이 충성해도 차별하시네.’ 하며 놀라웠던 다른 불만도 나오지요.

이처럼 서운함, 판단 정죄, 오해, 시기 질투 등으로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충만함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죄의 담만 쌓아갈 뿐이지요. 스스로 정죄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낙심하고 지치는 것도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악을 발견해 애통할 때도 영적인 애통을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새 힘이 옵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며 마음을 굳게 다지게 되지요. 그러나 ‘그만 쉬고 싶다.’ 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지친다면 이는 육적인 애통이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맞는 생각이라도 평안을 주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한다면 즉시 차단해야 하지요.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즉시 영의 생각,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럴 때야 영적으로 정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2.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 점검해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춥니다. 자기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 행하지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육적인 지혜와 경험도 중요합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도, 전도나 심방을 할 때도 경륜이 있는 일꾼들은 그동안 행한 방법론 안에서 쉽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영의 일꾼이라면 이와 더불어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심방해야 합니다. 이때 일꾼이라면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하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전해야겠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속에 심방할 때는 열심을 내라고 말로만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왜 뜨거운 신앙을 갖지 못했는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면 세상의 헛됨을 깨우쳐 주고 천국 소망을 심어 줍니다. 어떤 일로 상처받고 실족했다면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을 전하지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걸려 있다면 그 생각을 깨뜨려 줍니다. 이처럼 상대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려면 자기 능력 안에서 심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행사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진행한 행사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예상 인원은 몇 명쯤 되고, 어느 규모로 준비하면 되는지’ 경험과 지식 속에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계산에 따라 잘 준비해도 변수가 있습니다. 예년과 다른 날씨가 되거나 예상치 못한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이런 경우 자기 경험과 생각에 의지해서 계획하는 사람은 온전한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어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 3.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야

영의 마음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범사에 섬겨 주며 남이 잘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하

지요. 반대로 섬길 줄 모르고, 상대의 형편에 무관심하며, 희생할 줄 모르고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영으로 들어가고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말씀 무장하고 기도를 쌓아야 하니까’ 하면서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지요. 자기 스스로는 영을 사모한다고 착각하지만 오히려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단 받을 때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더 쉽게 드러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힘들어도 그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려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온갖 힘든 표를 내면서 주변 사람이 자신의 눈치를 보게 합니다. ‘내가 힘들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정당화하기도 하지요. 영의 사람이 되려면 연단을 잘 통과해 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연단을 통해 악을 쌓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도 사랑과 덕으로 상대를 품습니다. 함께 일하는 일꾼들 중에는 게으름을 피며 열심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실수하거나 속이는 사람도 있지요. 이럴 때 영적인 사랑이 부족하면 상대가 답답하고 부족해 보이므로 감압적으로 대합니다.

때로는 영의 사람도 강하게 책망하고, 강권해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한 말로 권면할 필요가 있다면 그만큼 상대의 영혼을 마음에 더 품게 됩니다. 혹시라도 힘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피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이런 사랑이 있을 때야 신속히 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크다고 영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할례하는 노력을 통해 성결을 이뤄야 하지요.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했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영의 마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mailto: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수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http://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2 『멈추지 않는다』와 자서전 『나의 삶 나의 신앙 2』에 게재된 북한에 대한 예언을 게재하며 예언을 확증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앞일의 비밀한 것까지 예언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 ◆ 1983년 12월, 하나님께서는

남북 간에 정상급회담이 열리게 될 것과 그 후에 전개될 일들에 대해 알려 주셨다.

당시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극도로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남북이 하나 되어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대화가 나오면 곧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장차 되어질 일이다.

### ◆ 2000년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 주셨는데 북한 측이 회담 후에 지하에서 밀담한 내용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다(우측 기사 참조).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에 대하여 조만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답방하리라고 온 나라가 믿었고, 세계 언론들도 그렇게 입을 모았다. 남북공동선언 합의문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한에 오겠다고 서명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오지 않는다. 대신 제2인자가 오리라.”고 알려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 2004년 1월, 하나님께서는 (장차) 북한이 겉으로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개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게 될 것을 알려 주셨다.

“북한은 지금 많은 것들이 고립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 자기 것을 고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내부적으로는 심히 많은 갈등과 불화 속에서 그들 체제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흐름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속에 자기 체제를 지켜 주고 보장해 주고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인해서 그 명분을 인해서 문을 열게 되는 것이라...”

그동안 북한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이러한 체제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이고 우방이라 믿고 있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미 개방의 물결을 타고 급속한 변화를 체험해 가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서라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 ◆ 2004년 7월, 하나님께서는 북한이 장차 일시적으로 개방의 문을 열 것과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문을 닫게 될 것도 알려 주셨다. 아직은 중국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에 미국의 압력으로 개방하지만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권력을 힘입어 다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문호가 개방되어도 북을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또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시기도 그만큼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멈추지 않는다』 7부 '비밀' 중에서 -

### 남북정상회담 결과도 예언한 대로

1983년에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대로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회담이 있기 전 2000년 6월 4일, 주일에 배에 나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앞으로 진행될 일을 미리 선포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는 숨은 계기가 있으며 우리 대표단이 여기에 넘어 가면 안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는 작은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 ◆ 6월 11일, 주일 예배에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내용을 설명했다. “회담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1차 회담에서는 부드러운 만남으로 함께 산보도 하고 가벼운 우스갯소리도 하며 정치, 경제, 체육 등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3차부터는 저들의 간계에 의해 대통령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큰 어려움은 피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산보한다는 것은 두 정상에 정답게 걸어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친밀하게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하였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와 환영하였다. 두 정상간의 회담 분위기가 어색하고 딱딱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방북 기간 동안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다정하게 걸으며 친밀한 모습으로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 국민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거침없는 그의 행동은 남쪽 시청자를 매혹케 했으니 ‘김정일 쇼크’, ‘김정일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대로 남북정상회담은 매우 우호적으로 진행되었고 향후 회담도 약속했다. 첫 번째 회담이 성사될 때 국민들은 감격했으며, 화해 무드에 온 나라가 들떠 있었다.

###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

### ◆ 6월 16일 금요일아침예배와 18일 주일예배를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내용을 성도들에게 전했다. 북한이 우호적으로 한 많은 분야와 대통령을 환영한 것도 철저히 계획적이다. 하나님께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환송한 후 곧바로 비밀회담 장소에 가서 무력통일에 대한 비밀회의를 했다고 하셨다. 그들은 방북한 남한 측 주요 인사들을 분석하고 누가 북한에 도움이 되는지 토의했다. 남쪽에서는 그들의 우호적인 행동에 속아 평화통일 꿈에 부풀 때 북쪽에서는 무력통일 의지를 다지면서 방법론을 모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나와 대통령을 환영하는 짧은 시간을 통해 남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알려 주셨다. 남한 국민은 그동안 북한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나쁜 이미지를 가졌는데 이 회담을 통해 좋은 이미지로 바뀌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한 계획에 성공한 것이다.

또 햇볕정책을 통해서도 남한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을 알려 주셨다. 햇볕 정책으로 원조를 받고 나면 당시에는 협조하는 것처럼 보여도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우호적이나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현실로 드러났고 그동안 북한은 핵을 준비하며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해 왔다.

- 『나의 삶 나의 신앙 2』 제4장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중에서 -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168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1070-3601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울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1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6650-2046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전원맨션 2동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238, 2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7127-2073
- 결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